순창, 내년예산 4045억원 편성

올해 3835억원 대비 5.48% 증가

순창군이 인구 4만, 관광객 500만명, 예산 5,000억원이라는 비전달성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보다 210억원이 증가한 4,045억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순창군 의회에 제출했다.

순창군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303억원(8.48%)이 증가한 3,878억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 세출예산은 생활복합 SOC사업 등 신규 국·도비 사업 23개, 247억원이 반영 되었으며, 자체재원은 군의 각종 정책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복?유사사업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 지방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전심의와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 편성은 군정 3대 비전 달성 및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을 위해 집중했다. 주요 예산으로는 농민이 행복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 만들기를 위해 팹랩플랫폼 구축, 친환경농업 정착지원, 청년 창업과 일자리창출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60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관광객 500만명 유치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창 만들기를 위해 섬진강 다님길 조성 및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농촌테마공원 조성, 문화예술 건립 등을 위해 32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밖에도 군은 명품교육고을 육성과 복지가 먼저인 순창을 만들기 위해 고등학생 해외 역사문화탐방 기회제공과 고령화 대비 은퇴자 교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참좋은 가족센터 건립, 행복누리센터 운영 등 맞춤형 생활복지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복지예산 등도 꼼꼼히 챙겼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228회 순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달 1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올해 분양한 청년 농업인의 실습농장을 내년에 확대 운영한다.

블루베리 실습농장으로 농부의 꿈 키워요

청년들 수확부터 판매 체험

순창군이 올해 분양한 청년 농업인의 실습농장을 내년에 확대 운영한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순창군 구림면 위치한 소득개발시험포에 블루베리 실습농장 1개소(면적 1,000㎡)를 청년 귀농인인 송씨 부부에게 분양했다. 그 결과 송씨 부부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군이 내년에는 2개소로 확대하고 면적도 2,000㎡로 확대 운영키로 결정한 것.

송씨 부부는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올해 실습농장을 운영하게 됐으며, 직접 블루베리를 수확해보고 유통, 가공까지 농가경영의 직접적인 체험을 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가졌다. 송씨 부부는 분양받은 농장으로 블루베리 400kg를 수확해 직접 판매하며 6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실습농장은 단순히 밭만을 빌려주고 분양인이 직접 토양을 갈고 작물을 직접 심고 재배하는 것이 아닌,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 농장을 분양받아 수확과 판매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작물을 심고 재배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유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군의 기획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 결과 송씨 부부는 재배보다는 수확과 유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작물 재배에 따른 수고로움도 덜 수 있어 이번 분양농장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송씨 부부는 블루베리 수확 후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농경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송씨는 "올해 블루베리 유통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면서 "소비자의 생각이 생산자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유통을 잘 할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고 전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내년에 실습농장을 확대 운영해 젊은 청년들이 직접 블로그나 홈페이지, 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팔아보는 경험을 갖게 할 것"이라면서 "유통의 어려움이나 희망을 갖는 기회를 가져 추후 순창에 안정적 정착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표 김장페스티벌 전국적 명성 대성공

총 700여세대에 4천여명 참여, 임실표 농산물 신뢰감에 큰 인기

임실군표 김장페스티벌이 전국에서 찾아온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대성공을 거뒀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4회 임실 아삭아삭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한 결과 총 700여세대에 4천여명이 축제장을 찾아 김장을 담그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김장페스티벌은 활짝핀 국화꽃이 남아있는 임실의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진행됐다.

주말과 주중에 걸쳐 9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유정임 김치명인(포기김치명인 제38호)과 함께 진행, 도내 외에도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이들은 유정임 명인의 김장담그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가족, 연인등이 직접 참여해 힘들이지 않고 웃고 즐기는 가운데 손수 만든 김치를 김장통에 가득 채워갔다.

올해 김장페스티벌은 전년보다 두배 많은 절임 배추와 양념을 준비했으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김장을 담글 수 있고 인기가 높아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미처 사전신청을 못한 가정을 위해 현장접수까지 실시했지만, 준비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며 많은 소비자들이 아쉽게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 높은 인기를 보였다.

임실군표 김장페스티벌이 전국에서 찾아온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대성공을 거뒀다.

인기요인으로는 임실지역에서 생산되는 맛있고 위생적인 고춧가루와 절임배추 등 우리 농산물이 단연 으뜸으로 꼽혔다.

절임배추 작목반을 대상으로 배추품종 선정, 신안 천일염 공동구매, 재배교육, 절임 매뉴얼 교육 및 실습 등으로 품질의 고급화와 균일화 등 철저한 준비도 한 몫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와 참여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미세먼지와 추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대형 돔형 텐트를 설치한 것도 만족도를 높혔다.

부산에서 관광차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왔다가 김장페스티벌을 보고 현장접수한 한 가족단위 관광객은 "생각지도 않은 김장을 임실에서 30분 만에 담아 가는 행운을 얻어 정말 즐거웠다"며 "게다가 수육과 두부, 치즈호떡 등 다양한 먹거리가 행사장에 준비되어 임실에 대한 좋은 기억과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흐뭇해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

남원시는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오는 12월 11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지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남원시와 남원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빈발 지역인 관내 아파트 주차장과 판매시설 주차장에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원시의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는 466건, 2019년 10월 기준 513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역 메아리

남원, 나눔으로 행복 만들기 출발

남원시는 지난해 성공리에 펼친 나눔 캠페인이었기에 올해 큰 기대를 가지고,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희망2020 나눔 캠페인을 오늘(20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펼친다.

성금 접수는 남원시 주민복지과와 23개 읍면동 사무소에 가능하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되며, 갈수록 악화되는 체감경기 속에 올해는 사랑의 온도가 얼마만큼 우리 주위를 덥혀줄지 모두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남원시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 "올해도 희망의 날갯짓을 기대해 봅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남원, 그리고 전북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읍시다."라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환주 남원시장은 "나눔이 곧 희망입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남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웃돕기에 동참한다면 우리시에도 희망이 싹트는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4,306억4,446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93억3,516만원(7.3%) 늘어났다.

또한, 11월 25월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1년간 임실군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감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임실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9건, 동의안 9건,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변경(안),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안),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변경(안), 삼계면 윤슬관 및 다목적구장 신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대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1개월에 이르는 긴 기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